

## 전염성 질환의 변화양상 및 예방접종의 득과 실

### *The changing patterns for communicable diseases, and gain/loss of vaccinations*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염성 질환의 변화양상 및 예방접종의 득과 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염성 질환은 10대 사인 중 1920년대까지 1위였고 1965년까지만 해도 5위 이내이었다. 1979년 이후 5위 이후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는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인 중 전염성 질환의 상대빈도는 1942년 18.2%, 1965년 14.8%, 1974년 9.7%, 1980년 5.4%, 1990년 3.4%, 2000년 2.5%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비용-편의 면에서 이롭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작용, 경제적 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서적과 참고문헌 등을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페스트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었다. 천연두, 재귀열, 발진티푸스, 폴리오, 디프테리아 등은 최근 완전히 사라졌다. 백일해, 파상풍, 일본뇌염 등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핵과 B형간염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질환이 재출현하고 있다. 세균성이질은 1998년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1,118명이 발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홍역, 풍진 및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발생이 증가한 적이 있다. 말라리아는 1993년 재출현하여 2000년 4,14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전염병의 원인 균이 분리되어 원인이 밝혀졌다. 신증후군출혈열은 1970년대 말 한국 학자에 의하여 한탄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쯤쯤가무시병은 1984년 원인 균이 분리되었다. 렙토스피라증은 1984년 원인 균이 분리되었으며, 그 후 감소하다가 198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국내 최초로 브루셀라증 환자가 보고되었다. 최근 신종 전염병이 보고되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1980년 이래 매년 수십의 환례가 보고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1984년 처음으로 혈청학적으로 진단되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1998년 첫 환자가 확인된 후 2003년에는 집단 발병이 확인되었다. 에이즈/HIV 감염증은 1985년 말 확인된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증가폭이 커졌다. 2003년에는 보툴리즘 환자가 3명 발생하였다. 2003년 전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스의 경우 3명의 추정 환자가 보고되었으나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조류독감이 닭과 오리에게 유행하였으나 인체 발생 사례는 없었다. 1990년 이후 식중독 환자, 병원 감염, 패혈증 및 내성균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의 역사는 1882년 종두법이 도입되었으며, 1912년 천연두와 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2001년도부터 홍역퇴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홍역 퇴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및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하여 1992년 6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결론:** 기후의 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많은 전염성 질환이 유입되거나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이러한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의 효과, 효율 및 비용-편의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 감시체계, 기록 및 등록체계, 부작용 감시체계 등을 강화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